

문화

'라이브러리&리브로' 출판인 180명 설문조사
'대통령 당선인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



대통령 당선인, 이 책은 꼭 읽으시길...

제 18대 대통령에게 권할만한 책, 어떤 게 있을까. 역대 대통령 중 책과 거리가 가장 멀게 느껴지는 대통령은 누구일까.

이 팔린 철학사로 꼽혔다. 21세기 성과주의가 우울증 같은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고 진단한 책으로,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덴마크어, 중국어로 번역 출간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고 있다. 2위는 헤민스님이 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꼽혔고 정약응의 '목민심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미국의 사상가인 데이비드 소로우가 한적한 월든 호숫가에서 살았던 숲속 생활의 세밀한 일기이자 명상의 기록을 담은 '월든', 법정 스님의 '무소유' 등이 선정됐다.

대중 전 대통령을 꼽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38.4%로 뒤를 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 박정희·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은 각각 0.5%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독서의 해'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10명 중 8명이 '50점 이하'라고 답했다. '10점 이하'라고 혹평한 출판인도 31.1%나 됐다. 한 응답자는 "이벤트 몇 차례로 책 향기 나는 나라 만들었다고 큰소리칠까 두렵다"고 비판했다. 차기 정부에게 바라는 독서 진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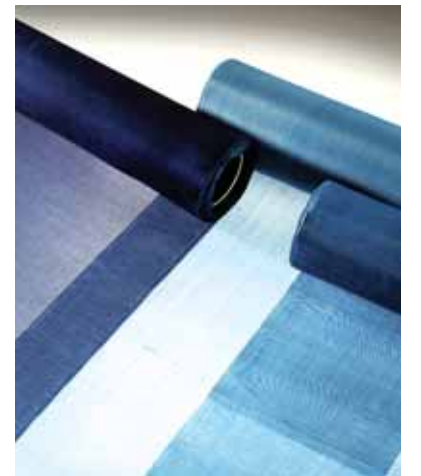
- '피로사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목민심서, 공직자가...'
'로마인 이야기'
'정의란 무엇인가'
'월든'
'무소유'

정책으로는 '안전한 도서정가제 확립'(41.7%)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공공도서관 예산 증편(26.7%), 골목 서점 살리기 정책 마련(15.5%) 등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알림

전남무형문화재작품전

광주일보(사)전라남도 무형문화재보존회(이사장 정관재)와 공동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인간 문화재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2012 전남무형문화재작품전'을 개최합니다.



정관재(염색장)씨의 작품

- 주최: 광주일보(사)전라남도 무형문화재보존회
■ 일시: 12월7일~14일
■ 장소: 보성 서재필 기념공원 계심헌 미술관
■ 후원: 전남도·보성군·서재필기념사업회

광주의 숨은 매력을 찾아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견문록 II'... 오늘 출판기념회

광주의 매력을 발굴하고 꼼꼼하게 스토리텔링한 광주탐험 가이드북 '광주견문록' 두 번째 권이 나왔다. 광주문화재단은 최근 자원활동가 모임 문화관광탐험대의 1년 활동을 담은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견문록 II(이하 견문록II)'를 발간하고, 4일 오후 6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출판기념회 및 사진전을 개최한다.

를 품은 마을과 길', '뛰어라, 심장! 광주문화의 뜨거운 현장 속으로', '피어라, 광주! 꽃과 나무가 있는 풍경 속으로', '정겨워라, 도란도란! 차와 사람이 있는 풍경', '품어라, 문화! 광주문화의 인큐베이터를 찾아서', '그리워라, 사람들! 광주문화를 일구는 사람들' 등 총 260여 쪽, 7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책은 문화예술 관계자와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자료를 수집해 지난해 12월 첫선을 보인 '견문록 I'의 내용을 보완했다. 문의 062-670-74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화대전 대상에 송영학씨

이재량 '채워지다' 최우수상
윤주희 '폭포' 우수상



송영학 작 '흘러내린 시간 속'

제 24회 한국화대전에서 '흘러내린 시간 속 잊혀져간 영웅들'을 출품한 송영학(28)씨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광주시와 광주미술협회는 지난 1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 제24회 대한민국 한국화대전에서 출품된 378점에 대한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채워지다'를 출품한 이재량(22)씨, 우수상에는 '폭포'를 출품한 윤주희(23)씨, '유람1'을 출품한 권용연(22)씨를 각각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후원기업이 주는 특별상에는 김혜림(27)씨의 '너도 그것과 더불어 그렇게 될 것이다', 장혜영(43)씨의 '여름1', 임천복(28)씨의 'desire'가 각각 선정됐다. 상금 1000만원과 개인 초대전을 열어주는 대상작 '흘러내린 시간 속 잊혀져간 영웅들'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새로운 발상, 치밀한 구도, 색채, 조형요소들이 매우 뛰어나 작가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입상작은 13일부터 17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추천·초대작가 작품과 함께 전시되며 시상식은 14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문의 062-222-8053. /김지을기자 dok2000@

인기작가들 작품 이번 기회에 구입하세요

A옥션, 11일 광주금호갤러리에서 경매... 작품 관람도

연말, 온·오프라인에서 열리는 미술 장터가 풍성하다. 특히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작가들의 작품이 적지 않고 화랑 거래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일반인들에게 미술품 구입 기회이기도 하다. 전문 미술품 경매 회사인 A-옥션은 오는 11일 오후 4시부터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제 17회 오프라인 경매를 실시한다. 이번 경매에는 서양화, 서예, 동양화 등 211점이 출품되며 경매에 앞서 6일부터 11일까지 경매에 출품되는 작품을 전시해 누구나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오지호 작 '해경'

광주에서 열리는 경매라는 점에서 오지호, 송필용, 이강하, 오승우, 강연균, 임직순, 황영성, 진양욱 등 인지도가 높은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선을 보인다. 오지호 화백의 '해경'을 비롯, 오승운의 '이화', 오승우의 '관매도'에 고 이강하 화백의 '해바라기', '윤화-4', 강연균 화백의 '누드', '무등산', 황영성 광주시립미술관장의 '가족' 시리즈와 '마을' 등 낯익은 작품들도 적지

않다. 소치 허련의 큰아들 허은의 그림에 에 허련이 글을 쓴 인물초상화 '능호거사진영'은 경매 시장에서 처음 선보여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미술전문기업 ㈜해럴드아트데이가 4일까지 여는 온라인 미술품 경매도 눈길을 끈다. 김중학의 '청동오리'를 포함해 윤보 김기창의 '바보산수', 아요이 쿠사마의 'Flying Eyes' 등의 작

품을 선보이는데, 지방의 미술 애호가들을 고려해 온라인을 통해 작품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의 K 옥션은 5일 이대원, 천경자, 김환기, 이우환 등 국내 대표적 작가들의 작품 등 123점을 선보이는 올해 마지막 경매를 진행하고 서울옥션도 12일 로망의 조각과 김환기의 점화, 천경자, 손상기 등 미술품 223점을 경매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인문학상 수상작 실은 아람문학 출간

아람문학 가을호가 나왔다. 신인문학상 수상자들의 시·수필 작품을 비롯해 정진성·맹일경·정연대·임호일씨 등을 이 계절의 시인으로 소개했고 반정호씨의 소설과 김철이씨의 동화도 실었다. 이번호에서는 신인문학상 수상작을 자세하게 다뤄 소개했다. 시 부분의 경우 장성 출신의 성석현씨가 쓴 '만나 주소서', '말씀 따라', '고백' 등 3편을 비롯, 김상일씨의 '가

을날의 초상', 김선남씨의 '마음의 축원', 최재승씨의 '내 맘 속 연꽃', 원성상씨의 '꽃나무와 나비', 김성기씨의 '엄마 품보다 더 좋은 것' 등의 작품을 실어 소개했고 김선남·김민서씨가 출품한 2편의 수필도 함께 담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Daewon Travel (주)대원여행사. Features a train and promotional offers for winter travel packages. Includes contact info: 062)526-7000, website www.daewontour.com.

Large advertisement for '소파 식탁 대전' (Sofa Dining Table Exhibition) at Hong79. Features the text '홍스페이스 1899-0240' and 'www.hong79.com(홍친구닷컴)'. Promotes 120 types of new products.